

#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0
IV. 국제신인도 .....	13
V. 종합의견 .....	15

## I. 일반개황

면적	580천 km <sup>2</sup>	G D P	443억 달러 (2013)
인구	44.4백만 명 (2013)	1 인 당 GDP	998달러 (2013)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Kenyan Shilling (KSh)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86.22 (2013)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4,43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최근 동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금, 희토류, 석탄 등 광업 부문도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개시설의 부족과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강우량의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좌우하고 있음.
-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부족인 Kikuyu족을 위시한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 이후 부족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2007년 대선의 부정 시비로 발생한 유혈사태 역시 그간 누적된 부족간 갈등의 표출로 분석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13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관광 부문 타격으로 4.8%의 경제성장 추정

- 케냐 경제는 2012년에는 상반기 중의 높은 이자율로 인한 투자 부진과 국제경기 불안정으로 4.6%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3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지속 및 9월에 소말리아 테러 조직 Al Shabaab에 의해 자행된 Westgate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인한 관광 부문의 타격 등의 영향으로 4.8%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Moody's는 케냐 경제가 Westgate 쇼핑몰 테러 사건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최대 2.5억 달러의 관광수입 손실을 겪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 2014년에는 물가 안정, 석유개발 추진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고용 창출 증가, 인프라 부문 투자 강화, 국제경기 회복 전망 등에 힘입어 5.6%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됨.

- 단, 관광 부문은 2013년 9월의 Westgate 쇼핑몰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상반기 중에는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양호한 강우량에 의한 식료품 가격과 전력요금 안정으로 전년 대비 하락

- 케냐는 관개 시설이 빈약하고 전력 생산의 약 63%를 수력발전에만 의존하고 있어 매년 강우량에 따라 식량 및 전력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며, 이 2가지 요소가 물가상승률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음.

- 2013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중의 양호한 강우량에 의한 식료품 가격 및 전력요금 안정 지속이 9월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을 상쇄함에 따라 전년(9.4%) 대비 3.6% 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의 경우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개혁에 의한 상품가격 인상 여파로 물가상승 요인이 존재하나,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 등에 힘입어 6.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lt; 표 1 &gt;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o</sup>	2014 <sup>f</sup>
경제성장률	5.8	4.4	4.6	4.8	5.6
재정수지 / GDP	-4.6	-6.5	-6.9	-6.1	-5.6
소비자물가상승률	4.0	14.0	9.4	5.7	6.3

자료: IMF, EIU.

####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재정수지는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및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 의 임금 인상 등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0년 4.6%, 2011년 6.5%, 2012년 6.9% 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음.
- 2013년에는 확대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세수(稅收)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1%로 약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에는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개혁에 의한 세수증가 효과가 본격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6%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농업 의존적 경제로 기후조건과 농작물 국제가격에 큰 영향을 받음

- 케냐 경제는 농업 부문이 2012년 기준 GDP의 29.3%를 차지하는 1차산업 중심의 구조임. 2000년 Kenya Tea Development Authority(KTDA)의 민영화 이후 농업 부문은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부족한 관개시설, 낙후된 영농법 등으로 여전히 농업 전반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 또한, 양대 수출품목인 차(tea)와 원예작물(화훼, 과일 등)이 상품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각각 19.9%와 17.2%로, 농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강우량 등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국제시세 등이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제조업 등 여타 산업 부문은 취약한 수준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임에도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 17.4%에 불과하며,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미비, 숙련 노동력의 부족, 관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도로의 약 14%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철도 운행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경제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상하수도 시설도 미흡하여 인구의 약 50%만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

#### □ 취약한 전력 인프라가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 산업 발전의 핵심인 전력 부문의 경우 전력보급률은 2009년 16.1%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30.5%)에 크게 미달하며, 전력공급도 수도인 Nairobi 및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등 취약한 전력 인프라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아울러 수력발전 비중이 높아(2009년 기준 약 63%) 갈수기에 전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득국가 반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의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인프라 확충에 매년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충당을 위해 2013/14회계년도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한편, 케냐 정부는 전력 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전력개발계획”을 통해 발전용량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증대하고 (지열발전량을 현행 157MW에서 500MW로 증대하는 계획 포함) 2018년까지 18.3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배전망 확장을 추진 중임.

## 나. 성장 잠재력

### □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산업은 테러 공격으로 성장 둔화

- 케냐의 관광산업은 동국의 주요 외화획득원으로, 2004년 이후 경기 호조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음. Moody's 투자서비스와 세계여행관광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관광업은 케냐 GDP의 14%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력의 12%를 고용하는 기간산업임.
- 케냐는 인도양 연안의 해변과 사파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풍부함. 케냐 정부는 관광산업을 "Vision 2030"의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관광 부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9월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 Shabaab에 의한 수도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었음.
- 케냐 정부는 치안 불안으로 초래된 관광 부문의 침체를 되살리고자 하나, 2014년 1월 Mombassa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10여명이 부상당하고, 2월에는 경찰이 역시 Mombassa에서 129명을 테러조직 가담 혐의로 검거하는 등 테러 공격의 가능성으로 관광 부문의 회복이 위협받고 있음.

### □ 석유자원 개발의 본격화로 2016년부터 석유 수출 기대

- 케냐를 위시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간 '자원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동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동 지역의 탐사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되어, 향후 탐사작업 진행에 따라 유전·가스전의 추가 발굴 가능성이 높음.
- 영국 Tullow Oil은 2012년 3월 Ngamia 광구에서의 석유 시추를 시작으로 동년 10월 Twiga 남부 1광구 등지에서 원유층을 발견, 2013년 9월 말 기준 케냐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약 24억 배럴에 달하였음. 현재 Tullow Oil을 위시하여 프랑스 Total, 영국 Royal Dutch Shell 등 23개 해외 기업들이 46개 유전 블록의 탐사를 진행 중임.

- Tullow Oil은 2014년 1월 케냐 South Lokichar 분지에서 원유매장량을 추가로 확인, 향후 탐사 진행에 따라 South Lokichar 분지의 원유 확인매장량 규모가 10억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음.
- Tullow Oil은 향후 2년간 South Lokichar 분지에서 20개의 유정을 추가 굴착할 예정이며, 생산된 원유를 수출 터미널까지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건설을 계획 중임. 동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케냐는 2016년경 동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원유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 금, 희토류, 석탄 등 광업 부문의 성장 가능성 높음

- 케냐는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북서부 인도양 연안 Kwale 지역에서 희토류인 니오븀(niobium), Kilimapesa 지역에서 금광, Kitui 지역에서 철광석 등이 발견되면서 지하자원 개발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케냐의 금 생산량은 2011년 1.6억 톤에서 2012년 3.6억 톤으로 2배 이상, 수출금액도 2011년 6,600만 달러에서 2012년 1.6억 달러로 약 2.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Narok 지역에서 금광의 추가 탐사를 진행 중임.
- 니오븀은 현 시세 기준 총 29억 달러 규모(세계 제5위)로 캐나다 Cortec사가 총 142헥타르의 매장지를 확보하여 9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티타늄의 원광석인 일메나이트(ilmenite)는 33만 톤 이상(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됨. 석탄 역시 총 31개 광구가 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탐사가 완료된 2개 광구에서 4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짐.

다. 정책성과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아직은 가시적 성과 미흡
- 케냐 정부는 2008년 초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관광업, 농업, 제조업, 무역, IT, 금융 등 6대 주요 분야를 선정,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 2배 달성 및 2030년까지 중소득국가 반열에의 진입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동 계획에 의해 케냐 정부는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교량 신설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개발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고질적인 부정 부패,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광업법 2013”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국영광업공사 신설 등 추진

- 석유, 천연가스, 각종 광물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 정부는 2013년 4월 출범과 더불어 광업부를 신설, 1940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광업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광업법 2013”(Mining Bill 2013) 신규 입법을 추진 중임.

- 광업법 2013은 광물 개발을 통한 정부 수입 최대화를 목표로 광물 개발 로열티를 대폭 인상(0.01~5%에서 2~12%로 인상; 희토류 10%, 보석 및 귀금속류 12%)하고 로열티 산정 기준을 순매장가치(net value)에서 총판매가치(gross sales value)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신설되는 국영광업공사(National Mining Corporation)를 통해 정부가 광물 투자, 광물개발, 탐사,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로열티, 광산 개발권 판매 배당금, 보너스 등 정부가 취득한 모든 광물 수익금의 최소 25% 및 광물법에 의해 지불된 여타 기여금 및 지불금 등으로 국부펀드(sovereign fund)를 신설, 정부 자금 확보 및 경제 안정화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IMF, 케냐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운용을 높이 평가

- 2013년 12월 IMF 이사회는 케냐에 2011년 1월부터 3년간 제공된 7.5억 달러 규모의 extended credit facility(ECF)에 대한 최종 리뷰 결과, 케냐 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세제 개편, 적절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운용 등으로 경제구조 개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음.
- 케냐 정부는 강력한 정책개혁과 건실한 거시경제활동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과 외환보유고 증가를 달성하며 외부충격에 대한 국가경제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유연한 통화정책의 실시, 기준금리는 당분간 현행 유지

- 2012년 긴축 통화정책의 운용으로 6월 기준금리가 18.5%까지 상승하자, 케냐 중앙은행(CBK)은 통화정책 완화로 대응하여 기준금리가 2013년 5월 8.5%로 하락하면서 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 한편, CBK는 물가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부터 각 시중은행의 최저 지불준비율을 현행 8%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지준율을 현행 12%에서 14.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 3. 대외거래

□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 2004년 이후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확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계류, 원유 등 수입 증가로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에는 석유개발 관련 자본재 수입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의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개선된 8.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계속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 추세

- 석유자원 개발의 본격화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2012년 2.6억 달러에서 2013년 7.0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3.9억 달러(GDP의 14.4%)로 추정됨.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연말 외환보유액은 6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한편,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은 케냐의 외환 유입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음. 케냐 중앙은행은 2013년 해외거주자의 송금액이 약 1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음.

□ 외채부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정부채무 규모 증가 예상

- 케냐의 총외채규모는 최근 5년간 인프라 부문 투자, 석유자원 개발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에는 전년 대비 약 7.1% 증가한 166억 달러(GDP 대비 37.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D.S.R.은 2013년 말 기준 7.0%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14년 말에는 11.7%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케냐 재무부는 2013년 11월 정부채무 총액이 9월 말 기준 2조 케냐실링(24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국 GDP의 55.6%에 해당함. 이중 대내채무가 56.8%, 대외채무가 43.2%이며, 대내채무의 75%는 장기 채정증권(treasury bond)으로 구성됨.
- 인프라 투자 증대를 위한 2013년 9월 2.3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채권 발행과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20억 달러 규모의 국채(sovereign bond) 발행 등으로 인해 정부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단,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로 외국 금융기관들의 신디케이트 론에 의한 6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상환할 계획임.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o</sup>	2014 <sup>f</sup>
경 상 수 지	-2,369	-3,830	-4,253	-3,871	-4,315
경 상 수 지 / G D P	-7.3	-11.2	-10.4	-8.7	-9.0
상 품 수 지	-6,231	-8,370	-9,308	-9,424	-9,918
수 출	5,211	5,792	6,165	6,110	6,549
수 입	11,442	14,162	15,472	15,534	16,466
외 환 보 유 액	3,982	4,228	5,682	6,391	6,490
총 외 채 잔 액	10,213	13,585	15,507	16,606	18,433
총 외 채 잔 액 / G D P	31.7	39.9	38.1	37.5	41.6
D S R	7.1	6.5	6.7	7.0	11.7

자료: IMF, EIU, OECD.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상황

- 2013년 4월 Kenyatta 대통령 취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선 관련 유혈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 잠재
  - 2013년 3월의 대통령 선거는 우려와 달리 각 후보의 지지자간 유혈충돌 없이 진행, 초대 대통령 Jomo Kenyatta의 아들이자 연합정부의 부총리인 국민연합당(TNA)의 Uhuru Kenyatta 후보가 당선되어 4월 취임하였음.
  - 그러나 Kenyatta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의 부정 시비로 촉발되어 1,200여명이 사망하고 6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규모 종족간 유혈사태와 관련, 지지자들이 저지른 살인, 추방, 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를 배후 조종한 간접적 공범으로서 2011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어 있음.
    - 이미 2013년 10월 31일 Kenyatta 대통령에 대한 공판의 개정을 당초 예정된 11월 12일에서 2014년 2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는 ICC는 2014년 1월 23일 성명을 통해, 2월 5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취소하였으며 수석 검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심리가 대신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동 사안은 케냐 내 철도, 항만, 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원조 공여국들의 지원 여부와 맞물려 2014년 케냐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부족간 갈등은 권력 분점으로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위협 요소
  - 케냐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부족인 Kikuyu족을 위시한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 이후 부족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2007년 대선 후 발생한 유혈사태 역시 지속적으로 정치-경제계를 지배해온 Kikuyu족에 대한 타 부족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됨.

- Kibaki 前대통령과 Kenyatta 대통령은 Kikuyu족 출신인 반면, 아당 지도자 Odinga는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Luo족 출신임.
- 2007년 말의 대선으로 촉발되어 3개월간 지속된 유혈분쟁은 2008년 4월 헌법 개정 및 대연정 구성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이후 2013년의 대선이 평화적으로 치러지는 등 부족간 갈등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2년 12월 해안 지방에서 부족간 충돌로 30명이 살해당한 데 이어 2013년 3월 Mombassa 항에서 무장괴한들의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는 등 부족간 갈등에 기인한 사회혼란 위험은 계속 남아 있음.

□ 소말리아 난민 유입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로 치안 악화

- 1991년 이래 내전을 피해 케냐로 탈출한 소말리아 난민들 가운데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 Shabaab의 조직원들이 포함되어, 난민촌과 케냐 국내에서 테러 공격을 저지르면서 치안 악화의 요인으로 부각되었음.
- 2013년 9월 21일 Al Shabaab의 조직원들이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에 침입, 총기와 수류탄으로 무차별 살상을 저지르면서 쇼핑객들을 인질로 잡고 케냐 군경과 대치하자, 케냐 정부는 진압작전에 돌입하여 테러범 5명을 사살, 11명을 체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총 72명이 사망하였음.
- 케냐 정부는 Al Shabaab 조직원들의 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3년 11월, 향후 3년간 자국 내의 소말리아 난민들을 전원 소말리아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소말리아 정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HCHR)와의 3자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난민들의 전원 송환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임.

3. 국제 관계

□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

- 케냐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의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임. 2005년 역내 관세동맹의 출범, 2009년 단일 공동시장 창설협약의 체결, 2010년 역내 공동 관세율의 적용 등 궁극적 경제-정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C 5개 회원국들은 2013년 11월 30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단일 통화를 도입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합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재정정책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임.

□ 탄자니아와의 갈등으로 EAC 분열 조짐

- 그러나 EAC의 양대 축인 케냐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며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케냐는 우간다, 르완다와 결속을 강화하고 남수단을 끌어들이는 반면, 탄자니아는 부룬디와 우의를 다지면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끌어들이고 있음.
- 2013년 6월 25일 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 정상은 3개국을 통과하는 송유관, 철도, 발전소 건설과 단일 관광비자 발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에 2013년 10월 30일 탄자니아 EAC 장관은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와 경제적 결속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EAC 국가간 단일 비자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여 EAC의 분열이 감지되고 있음.
- 현재 케냐는 Mombassa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면, 탄자니아는 Dar es Salaam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과 새로운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

- 케냐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조국들과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교역 부문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은 영국, 우간다, 네덜란드, 탄자니아, 미국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석유, 천연가스 등), 인도, 중국, 일본, 남아공 등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 부담은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양호

- 2004~06년 기일도래분 4.8억 달러의 채무 중 3.5억 달러에 대한 2004년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합의 및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 부담은 양호한 수준임.
- 외채상황이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동국은 EA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고채무저소득국(HIPC)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 문제를 고려하여 과도한 양허성 차관의 수혜를 지양하고 있음.

#### □ 인프라 채권과 국채 발행으로 정부채무의 빠른 증가에 대한 우려

- 케냐 정부는 인프라 확충의 재원 조달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230억 케냐실링 규모의 인프라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200억 케냐실링(약 2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제6차 인프라 채권 발행 공모를 실시하였음.
- 공모 결과 목표금액을 훨씬 초과한 376.2억 케냐실링(4억 3,040만 달러)이 응모하여 성공리에 발행을 완료하였으며, 케냐 정부는 동년 10월 160억 케냐실링(1억 8,82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채권을 동일 조건으로 추가 발행하였음. 동 발행금액은 교통·운송(142.8억 케냐실링), 에너지(116.3억 케냐실링), 상하수도 및 관개(101.1억 케냐실링) 부문의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임.
- 한편, 2014년 상반기 중 발행을 목표로 1월에 실시된 케냐의 10년 만기 국채(sovireign bond) 발행 공모에는 당초 목표액인 100억 케냐실링(약 1억 1,600만 달러)의 4배가 넘는 자금이 몰려 케냐의 경제전망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정부채무의 빠른 증가로 채무상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03년 6월 케냐에 대하여 6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S&P와 Fitch는 B+, Moody's는 B1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2* (2013.10)	D2 (2010. 3)
OECD	6 (2013. 6)	6 (2012.10)
Fitch	B+ (2009. 1)	B+ (2008. 1)
S&P	B+ (2010.11)	B (2008. 2)
Moody's	B1 (2012.11)	(평가 없음)

\* OECD 평가등급 원용

###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64. 2. 7 (북한과는 1975. 5. 12 수교)

□ 주요 협정 :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2005)

### □ 우리나라의 대 케냐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3년 우리나라와 케냐의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2.9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유기화학제품,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괴(銅塊) 및 스크랩, 커피류 등임.

< 표 4 >

한·케냐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 출	214,947	262,966	258,047	합성수지, 유기화학제품, 기계류
수 입	17,604	27,809	29,173	동괴 및 스크랩, 커피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7건, 6,614천 달러

V. 종합 의견

- 케냐 경제는 2013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및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인한 관광 부문의 타격 등으로 4.8%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나, 2014년에는 물가 안정, 석유개발 추진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인프라 부문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5.6%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됨.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재 및 에너지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경상수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되는 점은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요소임.
- 반면, 최근 석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향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대되며, 외채상환 부담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임. 다만,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채권 및 국채 발행으로 정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우려되는 부분임.
- 2013년 9월 수도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사건의 근원이 된 소말리아로부터의 난민 유입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이 케냐의 사회안정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향후 케냐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5720)  
E-mail : [oki1122@koreaexim.go.kr](mailto:oki1122@koreaexim.go.kr)